

April 20, 1949

**The Korean Issue at the Third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Citation:

"The Korean Issue at the Third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pril 20, 1949,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ecord Group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Shipping Advice 2005, Item 2/99. Obtained for NKIDP by Charles Kraus.

<https://wilson-center-digital-archive.dvincitest.com/document/116523>

Summary:

Published by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Problems in 1949, this book contains a compilation of letters and news from 1948 that cover North Korea's position toward the Korean issue at the United Nations.

Credits:

This document was made possible with support from Leon Levy Foundation

Original Language:

Korean

Contents:

Original Scan

第三次國聯總會와 朝鮮問題



Doc. no. SA 2005
2/99

國際問題研究會
1949. 조선. 평양

목차

- 一、유·엔에대포물 파 할수있을 권한을정부에 위임하는 조선최고인민회의의 결정 (一九四八年九月十日) 一
- 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결정 제十大호 국권총회대표과정에관한결정서 (一九四八年十月七日) 一
- 一、국권사무총장에게 발송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무상의서한 (一九四八年十月七日) 五
- 一、불탄처와무삼에게 발송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무상의 서한 (一九四八年十月七日) 五
- 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무상이 국권총회제二회회의의장에게 발송한전문 (一九四八年十月九日) 七
- 一、윤·엔사무총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무상에 보낸회전문 (一九四八年十月十二日) 九
- 一、一九四八年十一月二十日 조선중앙통신의보도 〇

- 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一九四八年十一月十日 및 十一月十五日 정치위원회의서 一〇
- 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파견하고 조선문제에의 불명확적 불협조적 一九四八年十一月六일 정치위원회의서 一四
- 一, 一九四八年十二月六일 정치위원회의에서 제출한 조선대표 야·말리크의 연설 一七
- 一, 미불러 소위공통결의안 제출하고 미국적외출안 「정류」 승인파 재문은의되 유·엔위원단 조의를 회피 一九四八年十二月七日 정치위원회의서 二六
- 一, 조선문제의 전반적으로 미불러의 장악으로 보지 一九四八年十二月八일 정치위원회의서 二九
- 一, 조선에 관한 논제점의 하교 유·엔 정치위원회의 자설총결 十二月八일 정치위원회의 三二
- 一, 유·엔위원단의 비효율에 날조된 남조선 탄압선거 조선대표 야 말리크의 연설 一九四八年十二月八일 정치위원회의 三五
- 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상이 국련사무총장에게 발송한 서한 一九四八年十二月十日 三八
- 一, 조선문제에 관하여 로동당해전설로서 미영불러 결의안 강제 채택 一九四八年十二月十日 四一

- 一, 조선문제에 관한 말리크의 연설 一九四八年十二月十一日 十二일 일 유·엔추회전일회의 六〇
- 一, 一九四八年十二月十二일 유·엔총회의서 六四

△유언에 대표를 파견할수있는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조선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 제7회(一九四八年 九月十日)에 김장현대의원의 제의에 의하여 다음과같은 결정을 단행함으로써 채택하였다

「단일 유언에서 조선분체에 관한 토의가 있을때에 그필요에 감하여 대표 파견할수 있을것을 정부에 위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경제16호

국립총회대표파견에 관한 결정서

내각제五차회의는 一九四八年 九月十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채택된 「단일 유언」에 종회에서 조선분체에 관한 토의가 있을때에 그필요에 감하여 대표를 파견할수 있을것을 정부에 위임한다」는 결정에 의거하여 원제 의회에서 결정되고있는 국립총회에서 조선분체가 의정에 오른것을 고려하여 먼저 유언총회에 정부대표를 파견할필요를 인정하고 대표를 다음과같은 임명

한다

정부대포단

수석대포

의무상
위원장
박공명회

리파공
홍기주
이용애

정부대포단인 국면총회에 참가위하여 유, 연사무총장 트로그베, 리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포의 유, 연총회참가를 요청하는 처한과 불탄서정부
의무상 로베르드, 슈망에게 우리대포의 불탄서입국사증을 요청하는 처한을 발송
할것을 의무상에게 위임한다

一九四八年十月七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

수상 김일성

부수상 박헌영

점외무상 박헌영

(一九四八年十月八日부동신문)

△국면사무총장에게 발송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무상의 처한

파티

국면사무총장

트로그베, 리에게 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무상 나는 우리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사무총장거하
에게 다음과같이 요청하는 영장을 가지는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하에 일본제국주의의 장구한 식민지적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진 전민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전번들

조선인민이 자기의 민족적 정계문명 국가수호를 재지하기위하여 원강하고
도 주권하게 투쟁하여온 결과입니다

우리인민이 四十年동안 일본식민지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개하여온 승리의투쟁
의 목표—우리자주독립국가들 하두바때 전설하기위하여 一九四八年八月에 남북조
선운동을 통하여 조선국가 실시되었으니 이에 남북조선전체유권자의 八五,二%가 참
가하였습니다

이런거는 우리인민의 자유롭고 법적인 의사표시였습니다. 동시에 이런거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우리인민의 의향과 열의를 전 세계에 전시 하였읍니다.

이런거에 기초하여 조선에는 우리인민이 오래동안 갈망하던 온 최고집행기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및 통일정부가 창건되었으며 남북조선의 각의한 정치철방향을 가진 모든 중요한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대표자들까지 남북조선인민의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기한바로 부하를 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사무총장 귀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들에게 국민총회의에서의 조선문제에 참가할 가능성 을 부여하도록 귀하에게 요청할 것을 나에게 선임하였읍니다.

이노민족에 관한 문제든지 반드시 해민족의 법적 대표자들의 참석하에 심의되고 결 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할지는 없으리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바입니다. 나는 사무총장 귀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각기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귀하의 정책에 관한 통지를 나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는바입니다.

귀하의 지시 수심으로 저의를 표하되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장

박

현

영

一九四八年十月七日

조선 평양

(一九四八年十月八일 로동신문)

△ 불탄서공화국의 무상에게 발송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의 서한

파리

불탄서공화국의 무상

로베르 슈망 귀하

존경하는 삼 귀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나는 우리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삼 귀하에게 귀하가 프라가주재 불탄서공화국 대사에게 귀하성원으로 구성된 국면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의 불탄서(파리) 입국사중의 부여를 지지하기를 요청하는 영장을 가지는바입니다.

대표단성원

의무장

박흥필

六

통역 방도
홍가 주
홍가 주

상권하가 우요케한 응락하고 이를 나에게동지하시기를 기대하는바입니다
귀화에게 충실으로 경의를 표하며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무장 박원영

一九四八年十月七日

조선평양

(一九四八年十月八일부로동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무장 박원영선생이
국민총회제삼차회의의장에게 발송한 절문

과리

국민총회제삼차회의의장

에바르 귀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위임의의하여 나는 의장귀하에게 다음과같이
청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

조선이 연합국무리에의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장구한속된적억압으로부터 해방된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역사적의의를가진 전향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전변들은
조선인민이 자기의 민족적경제 문화및 국가독립을 재건하기위하여 완강하고도
꾸준하게 투쟁하여온 결과입니다.

우리인민이 四十년동안 일본식민지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개하여온 유혈의투
쟁의목표——우타 작부독립국가를 하루바삐 건설하기위하여 一九四八年八月에 남
북조선통일이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면 이에남북조선 전체유권자의 八五、二%가
참가하였을다.

이선거는 우리인민의 자유롭고 법적인 의사표시였습니다. 동시에선거는 우리나라

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의를 철저히 선시하였습
니다. 이선거에 기초하여 조선에는 우리 인민의 오래동안 관망하여온 최고집행기관과
최고집행기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및 통일정부가 창건되었으며
이는 남북조선의 각인한 정치적합당을 가진 모든 공화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대표자
들과 남북조선인민의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바르르를 축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의장권자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들에게 국민총회의에서의 조선문제점에 참가할 가능성은
부여하도록 귀하에게 요청할 것을 다짐해위인하였습니다.

어느 민족에 관한 문제든지 반드시 해민족의 법적 대표자들의 참석하에 협의되고
결정의이와함하는 원칙을 부정할자는 없으리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바입니다.
다음의 일기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위 우리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귀하의
제정에 관한 중대한 나에게 보내주기를 기대하는바입니다.

귀하에게 중점으로 정의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무상 박 현 영

一九四八年十月九日

조선 평양시

(一九四八年十月十二日 로동신문)

△유·인사무총장 트루그메·리·가 박현영의무상에게
보낸 회신

조선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무상 박현영 귀하

총회제1위원회에서의 조선문제의 토의에 참가할 기회를 조선공화국 정부 대표
단에게 줄것을 요청하는 一九四八年十月八일부 귀하의 전보를 접수하였음을
인정하는 영광을 가지나이다.

각각의 요청은 제1위원회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될때에 동위원회위원들의 회의환
부하였나이다.

사무총장 트루그메·리

파리十月十三日

(一九四八年十月二四日 로동신문)

△一九四八년十一月二十日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헌영의무장은 수련에서의 조선문제토의장 임박함에
비추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에게 수련에서의 조선문제토의에 참가할
기회를허여함에관한문제를 사급히 결정하여출것을 요청하는 서한을十一月十九日
다시 국영사무총장 트루그비·리·찌와 국영총회제3차회의 의장에마르치에게 보
내었다

박헌영의무장은 이와같은 내용의 서한을 국영총회 제3차회의 정치위원회 의
장 스타·크찌에게 보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초청에관한 체코슬로바키아의제의물 미국의반대

一九四八년十一月十日 및 十一月十五日 정치위원회에서

주지하는바와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그의대표들이 유·엔총회에서
전무제를 논의하는데 참가할것을 승인하여달라는 요청을 제기하였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그요청서에서 다음과같이 전술하였다

「이인민주에관한 문제든지 만든지 예민족의 법적대표자들의 참석하여 심의되고
결정되어야한다는 원칙을 부정할자는 없으리라오 우리는 굳게 믿는다」

체코슬로바키아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들을 초청할때 대한 문제를
정치위원회의 로의에 부칠것을 제의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대표자들이 조선으로부터
외 과학료 제네의 데도할수 있었을 초청장을 미라노내어출것을 제의하였다

이제의에 반대하여 미국대표 말레즈는「조선대표들」이 필적 과학에의제 케노
제이외판에 유숙하고 있는지 오해된것만큼 그러한초청장을 보낼필요가 없다

고 말하였던 이것은 말레즈가 남조선에서 미군정에의하여 조작된 의의정부 보
물을 염두에두고 말한것이다

의장은 지장이 늦어지고 또조선은제에관하여 문명이있음을 구설로삼아 조금하
게 회의를 폐막시켰다

그리하여 아무런 결성도 채택하지못하였다

오늘(十一月十五日) 체코슬로바키아대표는 또다시 정치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대표들을 초청할때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11

이제는 조련대표의 자제를 받았는데 조련대표는 유·엔제2차총회에서 일찌기 쓰페트대표가 조선 독립문제는 우선 조선인민자체의 일이기때문에 조선인민대표들의 참가가 없이는 토의될수없으며 더구나 결정될수 없다는 견지를 말하였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쓰페트대표단은 이전처가 一九四五年十一月十四일부 유·엔결정서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그결정서에는 유·엔총회에서 심의되는 조련문제는 우선 조선인민자체의 일이며 그의 자유와 독립에 관계된다는 것과 이문제는 그나랏 인민대표들의 참가가 없이는 분명정확한 결정을 얻을수없다는것이 전술되었다는것을 말하였다

쓰페트대표는 전조선총회를 통하여 설치된 자유선거의 결과에 남측조선인민대표들의 의사를 포괄하는 유일한 대표자회의로써는 최고인민회의가 선거되었다는것을 상기시켰다

이때고인민회의는 전민족정부를 창설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유·엔제2차총회는 조선독립문제를 심의하는데 조선인민이 선명한 대표들을 초청하여 참가시킬것을 결정하였다는것을 쓰페트대표는 말하였다

전조선인민의 이와같은 선명한 대표들로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대표들만이 될수있는것이다 쓰페트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들이 회의에 오자면 적어도 7인원은 결하여야 될것을 타산하고 지금즉시 초청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제의는 역시 우크라이나 페르시아 과판대표들의 찬동을 얻게되었다

그러나 미국대표 말레츠는 재차출연하여 체코슬로바키아대표가 제기한문제를 해결할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며 또이문제는 조선문제에 관한토의가 시작되는 때라야만 심의될수있다고 말하였다

말레츠의 의견은 즉시 중수 회합 말바도로 대표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영블러에 순응하는 위원회의 타수는 위원회에서 금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들의 초청문제를 토의할때대한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제의를 거부하고 이문제에관한 심의를 제1위원회에서 조선문제심의회 착수할때까지 연기시켰다 (마쓰)

(一九四八年十一月二十日민주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참가불거부하도

조선문제의 토의를 미영블럭 불법채택

十二月六일유·앵정치위원회에서

유·앵정회의의가 끝나기까지 겨우 一주일이 남아있으며 또한 정치위원회는 아직껏 중요문제를 심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十二月六일 정치위원회의에서는 현제이런문제를 취급할 것인가에 관한 토의를 개시되었다
미국대표 밀라쓰는 조선문제를 심의하여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였다
소베트대표 말라크는 조선문제로는 복잡한문제이며 남은사일안에 완전한 심의할수없을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전이라식민지유명문제가 외무회의에서 충분히 해명되었던만큼 이를테드대에 물어보았을 제의하였다

미국대표안은 차기제안으로 고집하였으며 그리고 그의은수한 「다수파」의 힘을 믿고 그의유장을 관할하며 시도하였다

조선은제가 내국대표로 동의하며 이를함으로써 자기에게적합한 정정강요하며

미국대표단의 의도는 조선인민의 대표들을 초대하여 그전해를 진술시킴에관한 의의가 정에서 보다더욱 명백하여졌다 체코슬로바키아대표는 전조선의 절대다수의 유산권들이 참가한 민주주의선거의결과 수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들을 초대할것을 제의하였다

중국대표는 전남총회의에서 미국대표단의 주장으로 비법적으로 조직된 기관 「유·앵조선위원회」의 원조하에 미군정당국이조성한 소위 남조선정부대표단을 조선인민의대표로써 인정할것을 제의하였다 조선대표초대에관한 토론은 극히 절제할성격을 매우게되었다

밀라쓰의 선포에 따르면 중국 유절렌드 기하一무국가대표들은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정부대표들을 초대할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유권자 七七·五二%와 북조선의유권자 九九·九七%가 참가한

남조선선거의결과 이정수가 수락된사실은 一반이 지지하고있는것이다
상기대표들은 이전에 인본침략자들에게복무하던 미국인앞잡이들이 조작한 경찰

테로의 분위기속에서 미국황국이진행한 선거허구의 결과로써 형성된 남조선회의

정부나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고있다고 무근거하게도 주장하였다
소베트대표 말라크는 남북조선인민의 모든사회계층을 망라한 대표들로서 구성

그에게 그 누가 시키한 일인가? 오늘 미국대사관 이같은 보도에 의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타산하여볼 때 그 기관지가 그와 같은 착오를 범하는 한 나는 그가 관저의 직관성을 의심하는 바이다 말리크는 또한 그가 관저의 다음호에 처기 대한 정점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 정점에는 정치위원회가 조선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들을 초청할 때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코솔로바키아 대표단의 제의를 거부하였으나 지적하였다 그런데 오늘 말리크씨는 그 기관지의 첫번 보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기관지의 정점에 대하여서는 묵과하였었다 어쩌서 말리크씨는 정치위원회가 그문제를 협의하고 그것을 거부하였다는 니 다시 그문제로의에 귀착하지 않으려고 전의하였나 하고 정식성명인 말리크가 어디있는가? 말리크는 말리크의 이같은 행동이 유언한 사실이 아니라 말리크가 지적하였다 이제 동의목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들을 참가시키지 않으려는 데 있다 말리크는 조선인민의 진실한 대표들의 의지를 침위하기를 겁내고 있는 것이다 말리크는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이 제출한 제안에 언급하면서 조선에 관한 유언한 의원의 의 제도를 주의하여 읽어본 사람은 조선인민이 남조선에서의 단두적 거절지를 결성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수 없다고 성명하였다 남조선의 좌익정당들만이 아니라 김구와 김구직같은 유명한 우익정당들을 수반으로

로한 남조선의 우익정당들까지도 이선거를 결정적으로 반대하였을 때 또한 유언한 고하였는 것이다 금년 2월에 유익정당의 이 두 정당은 조선에서 외국군대들을 신속히 쫓아내 하라 하며 전반적선거에 가추하여 통일정부 수립할 이 두가지 중대한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부조선의 제정당과 제사화단체들의 대표회의를 소집할 자기 계획을 위원단의앞에 진술하였다

이 계획은 그 후에 실천되었다 그리고 위원단의 제로에서 나타남바와같이 위원단은 이 계획을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계획에 동의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우익정당의 제정당과 제사화단체의 대표들도 저명한 대표자 김일성과 김두봉을 경유하여 이와 같은 협의회를 소집할 것을 역시 제의하였다 김구와 김구직의 할 기는 남조선의 사회계에서 광범한 환영을 얻게 되었다 김구와 김구직의 할 조선의 사회계의 압도적다수를 대표하는 五十六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한 남북연석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남북연석회의에는 一천만명이상의 인민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제사화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런 회의에는 남조선의 군정의 반등 그루마만이 참가하지 않았다 친일반역자들로서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에 일본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자들로서 승화된 이 두국우익 반등 그루마는 미군

정의 명령에 복무하여 또 조선사회의 대표자들과 대면하기를 겁내서 어떤 사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남북면석회의는 전조선인민에게 보낸 격문에 그의 입장을 진술하는 동시에 남조선의 단선실시를 저정함으로써 반대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또 남북면석회의는 마르크스주의와 양면성에 대하여 남북조선에서 외국군대들을 추사 제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뒤 4월말에 김일성 박헌영 김두봉 김구 김규식이 참가한 3개 정당 몇 개파 단체 대표자도자립의회가 소집되었었다 이회의에서는 조선연락의 회를 즉시 철폐하며 민주주의입사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국대학을 소집하며 적절적이고 평화적이며 전반적인 선거권에 기초한 비밀투표제와 헌법기관의 실시를 실시할 것을 정치적으로 그밖으로 예정하는 실이서를 작성 발표하였다

말리코는 조선주된 미군정당국은 조선인민의 절대다수인 정당 및 사회단체를 정적 명백하게 표시한 의사를 반대하며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전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유·엔조선위원단에 참가하였던 호주 및 중국대표의 상명에 의하여 판정하만 남조선주된 미군정당국은 될수없는대로 이선거를 전행함으로써 구우의를 등장당인 한국민주당과 이승만대표들의 대표자들이 선거권 재판에서 우세를 차지하였고 애썼던바 이것은 선거결과도 보았듯이 유·엔위원단에 의해 인정

국앞에 순종하는 조류들은 위원단인 고비법적선거에 참가할것을 주장하였었다 전자는 가혹한 정치적압박과 관압의 조력하에서 전행되었다 중간위원회의는 위원단을 억압하였고 중간위원회의의 미군대표들은 중간위원회를 억압하였다

말리코는 단독선거에 참가할것을 특별히 주장한 위원단의 위원들을 지명하였다 그것은 즉 바울린대표 발라도르 중국대표들과 또는 인도대표였다 「이와같이 선거에 참가할때 대한 결정은 위원단위원 4명의 투표로써 채택되었다 5명중 내서 2명의 위원은 반대하여 투표하였고 2명은 기권하였고 1명은 전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위원단은 카다만출처 중요성을 가진 결정을 1만이 공신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보통투표제 미군정에 유대할 남조선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다 위원단의 제표를 본다면 남조선주된 미군정기관 하나처럼 자신도 그의결핵에 의하면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할수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유·엔위원단과 중간위원회는 그결과를 실시할때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말리코는 이와같은 행위의 유·엔위원단과 상임에 타격을 주는것이 아니고 분명하였다 남북면석회의에 참석하여 상정한 선선서문 발표한 제정당주요로부터 유·엔의 비호명에서 미군정당국의 조선인민에게 집행하는 고위급은 결정을 공수방관하였다면 그것은 유추하고도 놀랄만한 일이 있을것이라고 말리코는

계속하여 상임하였다

이런 제들이 적당한 정척을 취하였던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제
二차 남북조선 재성당사 회담에 대표들의 한석회와가 소집되어 남북조선 총선거를
사에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북조선에서는 이설자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실시되
었고 남조선에서는 비밀리에서 二중선거의 원추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대표를
선거하였고 이대표들이 회담하여 전조선최고인민회의 대위원을 선거하였다 이를
거는 조선인민들의 자유의사의 표시였다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선거권 대표수
는 一〇八〇명이었는데 대회에 참가한 대표차수는 一〇〇二명뿐이었다 그것은 비
군정당국이 四八명의 대표자들을 제포하였고 三〇명은 로동에서 살해당하였던
까닭이다 그들은 남조선정찰 혹은 비군의 손에 살해당한 것이나

八월二十五일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전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三六〇명을
비밀투포로서 선거하였다 북조선에서는 전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三二二명을 선
거하였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에 북조선에서는 전유권자의 九九・九七%가 참가하였고
남조선에서는 전유권자수의 七七・五二%가 참가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말리크는
결정하기를 전조선인민은 이렇게 선거에 현실적으로 참가하면서 비군정투성이 참

정한 남조선 五・十단선을 반대하는 힘의를 지위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 조선인민들은 남조선「국회」와 그「국회」에서 조각래낸 소위 정부를 모이
고 하였다 전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조선인민들의 각계각층을 대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모들을 말리크는 열거하였다

이 최고인민회의 제一차회의에서는 一치가결로 헌법이 통과되었으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직되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조선인민이 남북조선인민을 합
하는 최고정권기관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리크는 강조하였다
九四七년 十一月十四일부 제二차유・연총회결정서에는 조선독립에 대한 문제를 접의
할 때에는 조선인민의 대표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킨 후 이와같은
전조선인민의 대표로는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될 수 있다고 말리
크는 인정하였다

상술한 바에 의하여 조대표로는 조선은 제를 모의하는 유・연총회에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를 추천하는 제코를 모의하여 제의를 지지한다고 말리
크는 인정하였다
그 다음 말리크는 소위 남조선정부 대표를 조선대표로서 초청하여야 한다는 주
대표단의 제의에 대한 조선대표단의 견해를 진술하였다 유・연위원단의 제의를

포함되고 있는 사실의 문헌들은 남조선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할수 있는 조건들이 현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주고있다고 말하고는 언명하였다. 남조선최고재판소장 김명환 부의장과 김구와 김구식 또는 송다환 남조선작가회단체대표들과 피의자들 지인하고 증명하였다. 남조선의 모든단체들과 이모든채로들은 남조선이 정치국가로 와야인으며 모든주권이 미국당국의 통치하에있는 경찰의 수중에 취하여있으니 영국의 지도적지위는 소위로부터 그이상은 五三%나 조선에서 이전 에 일본이 차지할의 판대노릇하던자들이 차지하고있으며 민간기관내의 책임직자 위에도 일본방역자들이 통용되고있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은 조건하에서 민주주의적단체들과 민주주의적정객들에대한 자유한 수방과합일이 집행되고있다 유·엔의 위원들은 그결론에서 민주주의적정객들의 참대다수는 무욕되었거나 전기후 은 위헌하에 취여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 무부장자제는 한국민주당원이며 그것의 지도부와 피승관도배와 밀접한관계를 가지고있는자이다 한국민주당과 리승만도배들도 수정된 「정부」가 조선의 남반부에서만선거되었다 하며마도 그「정부」가 전제인민의의사를 포괄하지않는것만큼 정의적의미에서볼때 민족적정부라고 말할수없는것이다 그「정부」가 남조선인민의 의사와도 포괄하느냐하는것을 의결 하지않는수 없다고 믿고있는 부연하였다

나 다대포는 증명하기를 원조전하에서는 민족적정부를 수립할수없음으로 남조선에서만 실시한 선거는 비법적선거라고 하였다 불만사대포도 이와같은관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모든것에도 불구하고 위원단은 九명의(위원 1명은 동위원단사안에 참가하지않은것을 타산하여) 위원장 四프로써 남조선인민의 운명을 결정하였다

발타코는 결론에서 위원단의 해로들은 남조선에서의 선거가 선거자들의 자유의사표시의 가능성이 없는환경에서 실시되었음으로 그선거를 법적선거로 인정할수없는것이라고 증명하였다 때문에 허위적반민주주의적 선거결과로 조작된 남조선정권기관들은 남조선인민의 법적대표기관으로 인정할수없는것이다 이러한리유로 쓰린대포판은 정선정권대포를 조선문제토의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초정하자는것을 반대한다 그것은 그정권기관이 전조선인민이나 또는 남조선인민을 대표하지못하며 그인민의 운명을 토의함에 참가할수없기 때문이다

(一九四八年十二月十六日 조선신문)

△미콜티소위공동결의안 제출하고 망국적리승단 「정부」 승인과 재토론회와 유·연의원단조직을회해

十二월七日 유·연정치위원회의에서

十二월七日 정치위원회는 조선문제에 본결에 관한 토론을 개시하였다

위원회는 재선총회에서 미국의주장에 의하여 유·연안을 위반하고서 선택된 비법적대행기관인 소위 「임시유·연조선위원회」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이위원회는 미국의 극동해역에서 자기의 침략정책을 음모하기위한 장악으로 그기관을 이용하기위하여 계획되었던것이다

이것이었던바 「임시유·연조선위원회」은 미국평창주의자들이 미국장관 힐드웨이와 만나서 남조선에서 영구한 「참호」를 파는것을 갖인노력을다하여 도아주었던것이아니 모한동위원단은 금년五月十日 남조선에서 「단선」허구를 연출하고 정성애나 미국의피해 「정부」를 수립하는것을 도우면서 민주주의의기본적제일추을 크게 위반하는데에 유·연의 위신을 이용하였던것이다

「임시유·연조선위원회」은 조선은 장래도역시 분할되체로 남아있을것이라로 선언하였다

공위원단의 보고문에는 다음과같은 부분이있다

「남북조선간에 평화적관계를 달성시키는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모순된 이데올로기들과 그들의 정치로선들이 점점대 증대하여가는 제력을가지고 충돌을 계속하고있는한 무이할것이라고 본위원회는 믿고있는바이다」

남조선에 「참호」를 파놓고 남조선농사기들의 군자기지로 변화시킬 미국침략자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기위하여 제정된이방정하고도 교만무쌍한 결론은 조선인민들의 현실한타이에 크게배척되는것이다 미국 비올렌트 호주및 부라질대표들은 十「월七日 정치위원회에서의 연설가운데서 「임시유·연조선위원회」을 추켜올렸으며 또한 그원조일에서 조국된 정성의 피의정부들 조선공화국의 합법적정부처럼 지지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남북조선의 전국적의사포시의 결과로서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정부를 유실하기에 갖는 노력을다하였다

정치위원회의 대표들에게는 미국 중국및 호주등대표들이 공동제출한 결의초안이 배부되었는데 이로한은 「임시유·연조선위원회」의 결론들에대하여 총회의승인을 얻을것과 동위원단의 원조일에서 정성에서조국된 피의정부들 합법적정부로서 지지되려하리금 선포하도록 부추리고있는것이다 이결의초안의 기안자들은 미국의

「조선위원단」보다도 더 광범한 권한을 가진 또 하나의 「조선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미국대표 팔레쓰는 이 초안을 지지하는 그의 토론 가운데서 유·엔은 벌써 결정된 것 즉 「대한민국정부」를 합법적인 것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미국대표단은 경성에 있는 미국앞잡이들의 구하며야 할 입장을 방조하기 위하여 유·엔의 위신을 리복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로물체스로 폭로하였다 미국철학자들이 남조선에 수립한 폭압통치제도에 한번의 주의가 불리지 않더라도 한 기위하여 팔레쓰는 북조선정체에 관한 무근거한 추상적 선언들을 하는 데 불부하였다

그의 언설은 공산주의에 대한 철부하고도 잔악한 투쟁로 가득차 있었고 이것은 미국대표들이 하는 언설의 아주 포본이었다 중국 불탄서 화란 기하 미영불력의 추계구간의 대표들은 팔레쓰의 언설을 충실히 반박하였으며 팔레쓰로 하여금 그들의 미국대표단의 결의안에 대하여 투표할 용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였다 위원회의 많은 시간이 미영다수파에 의하여 강제로 포결된 결과 회의에 참가하게 된 정동의 비의정부대변인의 장황한 언설로 허비되었다

조선에 있는 미정당당국의 이 앞잡이는 미국이 남조선에 수립한 비의정부를 결

속하였음에 북조선의 민주세력에 대하여 충성을 회우었다 그는 미국의 남조선에 로거하며 서울「정부」를 그 자신의 운명에 맡겨 두지 말 것을 애원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날 그 「정부」는 외국총칼의 후원을 받아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오전 회의가 끝날 무렵엔 미국대표 팔레쓰는 로물체스를 결의 초안을 팔리공파시키자고 서둘러 시작하였다

포레트대표 로지오노보는 이에 반대하여 미국대표단엔 이 명세서 두는 것은 조선문제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한 토론을 우물적하며는 무방에서 나온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조선문제 토론은 오후 회의까지 연기되었다

(一九四八年十二月十日 민주조선)

△조선문제의 전반적 토론

미불력의 장안으로 중지

十二月八일 유·엔 정치위원회

十二月八일 조선문제를 토의하는 정치위원회 회오후회의는 소위 유·엔조선립치위원회 회의의 차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제로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및 체코슬로바키아

들의 뜻을 경취하였다. 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중요에 의하여 미철적으로
설치된 이 위원단은 남조선에서의 기판적인 반민주주의적 견지를 숭배하기 위하여
유·엔의 권위를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 위원단은 그 활동을 통하여 조선을 미국을 위한
군사기지의 역할 할 수 있는 미국의 선전지로 만들려 함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제
들을 실천에 옮기는데 도움을 주었다.

조선에서의 미독점자본가들의 밑거주의적 목적들을 폭로하면서 때로찌아대포단수
적 개세로보는 미국의 남조선에서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경제적 조건
들을 펼쳐 만들어 놓았으며 조선을 양부분으로 절단하는 데에 성공하였다고 성명
하였다.

남조선 단독외교부를 조직하여 놓은 것은 미국의 모든 행동들을 완결하여 놓은 것이다.
개세로보는 다사 계속하여 말하기를 조선은 국제적 정세에 있어서의 두가지 반
적위세 중 하나는 조선이 허구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의 잔재를 철저히
정산하며 동시에 진정한 민주주의로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과 또 하나
는 미국 정부간 추구하고 있는 남조선을 노획하며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목적을
자전 조선간의 투쟁을 실제로 대중하고 있다. 단언하였다.

때로찌아대포는 또한 미국대포만이 정치위원회에 제출한 약정들은「조선위원회

단」의 사임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원호한 영국 및 정세의 뒤집어대포들의 성명을
비난하였다. 개세로보는 유·엔조선위원회만을 재차 설치할 것을 제의하고 있는 미국
의 앞에 언류하여 때로찌아대포단은 새로운 위원회의 형성을 전격히 반대한다고 성
명하였다.

개세로보는「조선인민들 자체에게「보호자」없이 미국군대의 참가없이 그들 자신의
운명을 해결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조선인민들 자체에게 동·적
안 민주독립투가를 건설할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때로찌아대포는 결론에서 때로찌아대포단은 쏘베트대포단이 제출한 결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쏘베트결의안에 차츰 투포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동회의에서의 기타 언설자들 가운데는 캐나다 뉴질랜드 및 할라드포의 대포들이
있었다.

그들은 미국대포가 그외성명간운대서 절박한것을 모두 고대로 운순하게 환
하였을뿐 새로운 아무것도 부연하지 않았다.

이들대포들이 미국정부의 자적으로서 정치위원회에서 말하기로 되어있었던것은
아주 명백한 것이다.

회의의 마감에 들어서 캐나다대포는 조선문제에 관한 전반적의를 종결할것을 동의

하였다
 조메트 및 과판대표들측으로부터의 반대도 불구하고 토론을 종결할것에 관한 차
 나 대표의 제의는 대다수표결로써 통과되었다
 그외하여 조선문제에 관한 질박적토의는 종료되었다
 다음회의에 있어서는 정취위원회는 미국 및 조선대표단들이 제출한 결의안문을
 심의하게 될것이다
 (一九四八年十二月十一일 로동신문)

○조선에 관한 문제심의하고

유·엔정취위원회 사업종결

十二月八일정취위원회

정취위원회는 작일(十二月八일) 야간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안을 심의
 하였다. 미국 호주 및 중국대표단이 제의한 결정안은 소위 유·엔정취위원회
 의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그위원단의 대표자들로서 조선문제위원단을 새로히 설
 정할것을 제의하였다. 그결정안의 조항중에는 유·엔총회는「결정장구들이 조선유

로부터 가급적 속히 점령군대를 철거하도록 권고할것」이라고 기록되어있다. 이
 조항은 그본질에있어서 조선에 미국군대가 금후도 주둔하는것을 철회하는것이
 그의 철거를 부기한하고 열거하는것이다

조선대표단은 유·엔조선위원단을 없이할것을 제의하는 결정안을 제기하였다
 조선 유크라이나 과판 백로짜야대표들은 미국결정안을 반대하여 열렬하였다. 이
 같은 결정안을 채택하는것은 조선을 독립시키는데 방해가된다는데 관하여 반박
 할수없는 충명을 인용하였다. 특히 유크라이나대표 마누일스키는 유·엔정취위원
 위원단은 유·엔의 기관이 아니었고 미국국무성의 도구가였으며 그의 모본에
 동은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전화하려는 미국독점자들의 의욕을 조성하는 방
 향을가졌다고 인정하였다. 미국이 제의하는 신위원회는 미국독점자들의 충실한
 도구로 또한 될것이다

미국대표단은 자기의 결정안을 통과시키기위하여 많은 수단을 다하였다고 타
 누일스키는 지적하였다. 그러나 다수가가 어떠한 결정을 채택한다하더라도 전
 인민들의 사회의론은 조메트대표단에 가담하였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미국 유크렌트 및 알바도트 대표자들은 미국결정안을 지지하여말하였다. 그외
 고 알바도트대표단은 조선에 대한 관폭한 공격을 저지치않고하였다

「조선에 대한 자기의 적대적 공격을 위하여 말바드르대사가 회유하고 있는 로렌은
법령소의 부가고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조선대표 로지오노르는 지적하였다. 그 결과는
매담할 가치도 없으며 또 필요도 없는 것이다.

미국결정안에 열광하는 조선대표는 그 결정안의 규정은 유·엔 헌장의 밑축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이 결정안은 조선의 독립을 협조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사와 독립을 포기할 가능성을 내어놓
는 것이다. 조선대표단은 이 결정안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그는 결론에서 말
하였다.

그러나 발동될 미국의 투표기구는 자기의 사업을 하였다. 미국결정안은 대수
오로지 채택되었다. 그를 지지하여 투표한 것은 四十一개의 대표자들이었다. 조선
우크라이나 멕시코야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유고슬라비아들은 이 결정안을 반표
하여 투표하였으며 서열 몇 드르웨하는 기권하였다.

그다음에는 조선대표가 제의한 결정안에 대하여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를 지지
하는 투표 六개 四十二표는 반대 三개 대표단은 기권하였다.
이것으로서 조선문제의 심의는 끝났으며 위원회를 사회학은 스파악크는 정
치위원회는 그의 사임을 종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회장에 프랑크의 있던 이 때의

적멸지에 관한 문제는 四월 一일 유구에서 제재된 본회의 제(후회의까지 열거
될 것이다)

(一九四八年十二月十五일 조선신문)

유·엔 위원단의 바흐밀의
날조된 남조선 단독선거

조선대표 야·팔리코연설
十二月八일유·엔 정치위원회

조선대표 야·팔리코는 十二月八일 정치위원회에서 진술한 자기의 연설의 첫
머리에서 조선문제는 이미 두번이나 유·엔총회 의정에 상정되었다는 것을 강조
시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문제가 첫번에는 미국대표에 의하여 一九四七
년 十一月에 제(二)차 유·엔총회에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조선문제가 다아
논바와같이 미국의 주장에 의하여 관찰된 「중간위원회」와 소위 「조선에 관한 유
·엔임시위원회」의 보고의 형식으로 제가되었다. 미국은 조선인민에게 자기의 지배
를 강요하려고 시도하면서 유·엔내에 소위 다수의 지지를 받고 유·엔을 평등으
로 이용하려고 애쓰고 있다.

조선이 북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거하는 것과 같이 미국은 실속한 시일내에 남
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거 대실예 조선문제를 유·엔에 제기함으로써 조선유
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또한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로서의 조선위부흥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밑에서 미국은 「조선에 관한 유·엔임시위원단」을 비법적
으로 조직해 하였으며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조직된 「중간위원회」에 끌고 갔다
말리려는 조선문제를 유·엔총회 회의에 제기한 것은 옳지 않으며 또한 비법적인 것
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전후조정에 관한 전반적 문제의 일부불인 조선문제는 남
시 현존적 제형성에 의거하여 해당관계 국가들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쓰린대포단
은 현재에 있어서도 이점지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다수에 의하
여 유·엔총회의정에 포함된 이상 쓰린대포단은 조선정체와 유·엔임시위원단」의
사업에 대한 견해를 진술하고 이문제에 관한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될 것이다

(소제) 조선인민의 발역자는 남조선미군정의 지주이다

「조선에 관한 유·엔임시위원단」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위원단이 이것을 바랐던지 바르지 않았던지 하여튼 남조선 「미군정당국에 의하여
정찰가르 화하였다」는 그림연한 사실을 문서로써 확증하였다 는 부문에 도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개별적 전문의 보도에 의하여 세계에 알려졌던 그 사실

오류에와서는 유·엔위원단의 공적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이 문서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一九五〇년八月 남조선에 침투한 미첩영단사령부는 남조선의 적국영토가 아니고
적첩영으로부터 해방된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철재의 군사적 점령제도를
실정하여 놓은 것이다

일본식민지 노예제도에서 해방된 직후 남조선인민들이 창설하여 놓은 민주주의적
정권기관은 파괴당하였다 그 뒤를 이어 미군당국은 일본법률과 경찰기구를 보존하
는 동시에 이천 일본식민지 통치제도를 복구시키고 또한 모든 행정 및 경찰기관의
각 부문에 다년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복무하던 변절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을 그
대로 남겨 두었다 이러한 정책을 변명하기 위하여 그들은 마치 조선사람은 자치
「능력이 없으며」 또한 민주주의적 관권행위를 가질 「능력이 없다」는 식민주의
치료를 폄하하였다 「유·엔임시위원단」도 이반인민적 비방적 리본을 그대로 실
취하여 자기의 보고에까지 도입하였다 미군정당국에 이와 같은 리본이 필요하게 된
것은 조선인민의 눈앞에서 또 세계 여론앞에서 친일 민족반역자들에 의거하고 있는
자기의 정책을 조금이라도 변명하여 보여 고한 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발
생되고 있는 사실과 민주주의적 발전의 모순을 전고 있는 북조선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조하여 보면 「이른바」 「이른바」 이 일이나 허위적인 간하는 것을 역설할
수 있는 것

이러

쓰런군사령부는 북조선에 진주한 첫날부터 일제의 식민적지 동치를 폐기하는 데 있어서 북조선인민의 광범한대중을 자기나라의 판리에 참가시키는 데 있어서 조선인민을 대상으로 원조하여 주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선거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지방정권기관과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또한 제헌민주주의적개혁이 실현되었다 이제만 민주개혁의결과 북조선에서는 국가활동가들 행정기관공동자거리간부가 자라났으며 민족연대의정치가 세로라 다 낫다 이리하여 이 사실은 조선인민의 자치능력이 없다는 판인민적의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북조선민주주의의 경험은 민주주의적제정당 및 사회단체가 광범히 참가하는 기층위에서 민주주의조선정부수립의대환과업은 조선의 해방된 적후부터 완결히 실현되었으리 이는 조선의 정치적 및 경제적통일을 촉진시킬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반대하였다 미군정남북은 자기위 패창주의목적을 실현하면서 북조선민족반역자들에 의거하여 남조선에 미군자본의 식민지로 미국의 철락기지로 만들려고 시도하였으며 또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말리크는 「조선에 관한 유·엔임시위원회」 자체의 보고에 지적되어 있는 문서자료를 인용하면서 남조선 미군다국이 남조선에 경찰수가 노 전환시켰으며 경찰체로

경찰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뚜렷히 보여 주었다 미군정남북은 일제통치하에 존재하고 있던 경찰을 그대로 보존하였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강화시켰다 위원단의 문서에나 하단 남조선정부부장으로 부러받은 공적자로에 이하면 경찰은 일제시대의 七천명대선에 거의 三만명까지나 증가되었다 또한 위원단의 자료에서 알리전파와 같이 남조선경찰은 민족반역자로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은 남구든지 다음대로 체포할수 있고 또 무기한 무급하혀 불수 있다 위원단내에 들어 있는 호후대표 계손의 언명에 의하면 남조선경찰은 여전히 일년경찰의 규율과 규정할 저점으로 삼고 있다 남조선최고재판소장의 언명에 의하면 남조선경찰은 재판소의 판결없이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체포할수 있으며 또한 경찰은 수천명사람들의 자유를 막탈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온갖 민주주의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데 판하여서는 위원단의 一회의 례이 증명하여 부끄러웠는데 그의 례에는 「민주주의적 견해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체포되어 있거나 또는 투옥되어 있거나 또는 이종와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이 되어 있다

남조선에는 경찰을 원조하기 위하여 三十만명이상의 단원을 가졌으며 또한 하도시와 대부락에 지부들 갖고 있는 거대한 반동파소청년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위원단생원들과 조설사람들과의 당화기를읽으면 우리들은 남조선정세에 관하여
 아야기하되 위원단으로는 그사람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는가를 알수있다고 말
 리크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야사람들은 자기의생명과 자기들의 동지들의 생명을
 염려하고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회의회에 기록하지말것을 요구하였다 남
 조선감옥은 경찰대로와 경찰회복의 희생자로서 충만되어있다 위원단의 자로로부
 터 알수있는것은 감옥내에는 三만명의 민주주의활동가들이 감금되어있는바 그들
 의나유는 자기조국의 자유와독립을위하여 투쟁하였다는 리유로써 일본공치시대에
 점거되었던 사람들이라는것이다 정치범들을 석방시키는문제를 제기하면 「위원
 단」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미군정당국은 금년四月一일까지 三一四〇명의 정치범을 대사할것을 위원단에제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이수자중에는 四月一일까지에 형기를 풀마친사람 一一五三
 명이 포함되어있으며 그외의 「대사」받은 사람중에는 남조선으로「유·엔」위원
 단」을 파견하는데 반대하는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는리유로 또 파견에 관련하
 였다는 리유로 一九四八년에 점거당한 사람들이 주로들어있는것이다 이같이하
 이 「대사」는 민주주의사상을 가졌다는 리유로써 감옥에 투옥된 정치범들의 기
 분정원에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것이다

남조선정치생활에서는 국우의반도정당 「한국민주당」과 리승만도당의 지배하고있
 다는것을 위원단은 자기재료중에서 승인하였다 「한국민주당」은 겨우 몇천명에불
 과한 정원을 가지고있으며 대자본가 지주 약 절반의자들로써 구성되어있다 이당의
 정원은 남조선미군정당기구의 관리하이다 남조선경무부장 조병옥은 이당의 활
 동가의 한사람이다

남조선정정 및 경찰기구로부터 친일분자와 반역자들을 추방하려는 모든시도는
 미군사령부로부터 강제한관대를 받고있다 이것은 수인한일이 아니다 이것은 의
 국인민에대한 지배체제인데 이체제에있어서는 반동적파시스트분자 반역자 반역자
 대국노들이 지주로서 리용되고 있는것이다 이같은체제는 허탈 일본 유류 및 기
 타의여타국가에서 적용되고있는데 역시남조선에서도 적용되고있는것이다

이같이 피악한 경찰의 삼박이 존재하여도 불구하고 「유·엔」위원단 「위원단」은
 남조선에 자유선거를 실행할 조건이 되어있다는것을 결론을 유·엔의 이름으
 로써 내리올수있다고 인정하였었다고 말리크는 지적하였다 그런데 위원단생원자
 선들까지도 남조선조건 밑에서는 자유로운선거는 불가능하며 인민의 모든 자유의
 자포시는 배제되고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위원단에서 이문제를 심의합
 에있어서 조우대표는 「남조선선거는 오직 한개의 유익정당에게 통제되었으리

그런데 전회 참가하였던바이다

그런데 전회 참가하였던바이다
그런데 전회 참가하였던바이다
「이래고하야」 호주대표는 「국회의정」을 제의하고는 조선전체정당들이 조선거
은 「이래고하야」 호주대표는 「국회의정」을 제의하고는 조선전체정당들이 조선거
인도대표는 정명하기를 그는 「중산위원회」결정의 철폐정당정에 관한의제에 동잡이라
구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이조치(즉전회)가 조선을 통일시킬수있겠는가 나는
몹시의심한다 선거결과에 조직권 민족정부가 전진로 민족적인것이 될수있겠는가
나는 몹시의심한다 우리가선거의 자유분위기를 보장할수있겠는가 몹시의
심하다바이다」라고하였다

말리코는 인도대표와 이렇게 그와같은 조건하에서의 선거를 찬동하여 투표할
수있었는가를 논하지않을수없다고 취적하였다 그런데 이때던 9명위원중에서 4
명의 찬동투표로 위원단의 선거를 감지할 권한을 가릴데대한 문제가 결정되었
다 바로 그날제정으로서 남조선단전의 운영은 해결되었다 위원단의 그와같은관
동은 자유선거정당을 철폐아기는 고하하고 소히히 남조선제회의 선거가 가혹한
정당입부의 한아조전하에서 행해되도록하였다

합법적으로 조차된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조선인민이 합법적으로 관할하는 조건과환경속에서 선거는 열매될수있다는것을
타산하여 미군정은 그의목적은 남조선정당파합계 장악적으로 선거를 실시할
은것대제을 취하였던것이다 유권자들을 협박하기위하여 남조선추진미군사령관은
「투표에 참가하지않는자는 그가 참가하지않는 선거결과로 성립된 정부의정책과
행동에대한 불만을 표명할권리를 상실할것이다」라는명령을 발표하였다

선거전야에 전남조선에 걸쳐 대중적집회가 열리되었다 금년5월7일부터 10일까지
지주 선거전3일동안에만 단선을 반대하는운동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五四二
四명이 체포되었으나 三五〇명이 살해되는 부상당하였다 선거이후 五월十일로
부터 十四일까지 위원대표회의하면 선거의 참가아니한다는죄로 부상당자들이
三七명이었으며 남해군이 자가 一七八명이었다 선거는 군사경찰들이 직접감독하
는 조건하에서 실시되었다 마주군대 경찰 병년 해로단화 특별히 조직된 「황보
단」들이 동원되었다 남조선신분들의 모노에의하면 미군군대는 완전한 전투준비상
태에있었으며 조선정당들은 미군군함들의 활동하였다 선거일에는 남조선전지역의
미군비행기들이 미군함함대였으며 곳곳마다 미군경비원들이 자동차들을고 정제어
내왕하였다 어디곳에서는 경찰들이 선거구배까지도 정제하고있었다

한미국은 자유신문에 발표된 유·피거자로우의 성명을 인용하였다 그가 순마에 의하
면 「자유」에는 미국 수적 미행자들이 비평하였고 선거분구들은 항모단원들이 공중이
고도 임중히 결핵하고 있었다 선거분구로부터 三十一테더거리에선 총칼로 무장한 계
급들이 불어치고 있었다 유·엔위원단에서 스마르트는 세계의 선거분구를 시찰하
였는데 유권자를 구타하는 자식원 한사람을 체포하였다」

남조선의 선거는 경찰대로의 조직하에서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조선정
이였다 五월十一일 중앙선거위원회는 남조선에서 등록된 유권자의 九二%가 선
거분구의 광복하였고 구중에는 제주도에서도 유권자의 七〇%가 참가하였다고 판
단하였다 그러나 후에 남조선내부의 여러 제주도에서 선거분구에서 무개선거구에서
는 「피선거구의 일선지역 투표가 전할 질서되지 않았음으로 미군사령부는 할수없이
선거분구의 선거일을 六월二十二일로 다시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七〇%라는
숫자는 불일치는 남조선정이었다 이처럼 선거에 참가한 유권자의 총 퍼센트도 남
조선정이었다 미군사령부의 결정에 의하여 한사람의 투표권을 유권자의 투표권을
선거구에서는 그후로자는 투표하지 않고 피선거구로 간주되었다 이면방식으로
「피선거구의」였으며 구중에는 후에 미군정의 강압에 의하여 남조선의 피선거부
계통으로 인정된 이승만도 불어있었던 것이다 유·엔위원단은 그자체가 규정하

였으며 로고와자로에 열거한 사실들에 관하여 선거의 결과에 따라 남조선 유권자들의
자유와사 포함하고 있는 뜻의 성명하였다

위원단이 이와같이 남조선정론은 위원단 자체의 자로에 따라 된 문헌과 사실에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재판관 판관자들의 견해와 결론에까지도 엉망나지 도주
되는 것이다 미국 시민적 공동체의 지도자인 조지·볼드윈은 남조선선거에 관하여 「미
국은 남조선에 민주주의적 기구를 창설하지 않았으며」 「미군정은 전례적응등을 강
압하는 경찰국가로 수립하였다」고 성명하였다

유·엔위원단은 별첨장을 하였으며 그의 일체 활동은 유·엔의 권위를 미용하
여 조신을 방부하고 남조선에 미국의 심민기와 질타기지로 화해하는 미국의 계획
심각하게 위협에 있었으며 남조선과 관련된 미군정당국의 책동과 인민중에서 민주주
의적구투파를 가혹하게 위협하며 해로가 전행하는 조건하에서 진행된 선거의
남조선 입회하며 함의 있었으며 남조선단선회의 정부의 조계를 입회하며 함의 있
는 것이다

유·엔의 편향된 인민들의 관심은 유·엔의 그의 한성원의 의도와 인민적 관민
부부의 자유주의의 미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피선거부의」
모순되는 것이다

필목의 음모를 품고 있었다

필레쓰 유화한 음모는 「프러시」를 명하기를 「우리는 다시 말하면 미국대토단은 데
「로와」란 압을 통오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시유·영조설위원단」의 자로써
책으로 정칙하게 「교관한자」라한 부가그것을 믿었는가? 설기전운동과정에서 남조
에서 경기 살해 및 후살당한사람의 수효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라 정치적 필인의
수효를 「삼만명」을 산하고 있는대 대하여 주의를 돌리라

필레쓰는 설명하기를 「공산주의적 방법」은 그에겐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아는파가 「공산주의적 방법」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과 인래인들이 광범한 민
주개현과 총선거권에 근거하여 국가관리에 직접참가하는데 귀결하는 것이다 이방
법들은 필레쓰의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대신에 그는 남조선주변 미군정당국의 무
인파 지도하에 남조선정인들이 적용하는 방법들은 대환영하는 것이다 이방법을
그는 찬동할뿐만 아니라 유·영총회로 하일금 그방법에 범적이 라는 주장할 죄을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조선인민에게 광범한 태도를 누가 감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필레
미국군정에 복무하고 있는 전일은 제국주의 추부들이 지도하고 있는 남조선경찰인
것이다

필레쓰는 모든사실과 문헌에 대하여 정곡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필레쓰
가 자기의 언설에서 자신이 설명한바와같이 유·영으로 하여금 우선 남조선에서
진행된 모든것에 「목적」이라는 도장형적 도표」하기위한것이라는 것은 의심할바가 없다
필레쓰는 이를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필레쓰의 정체를 비약야 한다는 필레쓰의 설명에 관하여 말리크는 각
종과 필레쓰의 정체를 설명적 설명은 미군정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남조선거군정
감시하에 있는 남조선교육에서는 수만명의 구공자들이 신용하고 있다 허함에서도
미국군사사절단의 눈이 제철피로자들의 목인과 동의에 의하여 수천명의 애국자들과
필레쓰를 사들이 허함당장 피로자들의 손에 총살당하되으며 부유당하였다 이것은
미국계 상수의자들이 실시하는 일련의 강압과 필레쓰의 일부분이다

「공산주의적 태도」에 대한 전설의 관하여 말리쿠는 말하기를 필레쓰는 이전설로
제 두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첫째는 민주주의 활동가들과 단체에 대하여 미
군정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강압과 태도를 설명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조선에 안전
을 보장한다는 구실로서 조선에 군대주둔을 계속하려는 미군정 필레쓰의 도를
경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필레쓰가 제출한 결의안의 반영되었던 것
이다

이결의안의목적은 첫째로 남조선의 비법적반민주주의적괴뢰체도를 승인시키려는 데있는것이다 둘째목적은 미군군대가 남조선을 계속점령하기위한 구실을 만들어 놓는것이다 이결안있어서 미군대표단의 의사를 완전히 폭로하면서 역사는 반부끄되고있다고 말리코는 말하였다

남도엔 유·연총회는 조선으로부터 모든점령군대를 가급적단시일내에 철거하여야한다고 정명하였다는것을 산지키면서 말리코는 그때로부터 일변이상이 정후하였으나 미군군대는 여전히 조선할 점령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군대표단은

모전대 당시일이라는데 환하여 특별한개념을 가지고있는 모양이다 가급적단시일내에 점령군대를 철거하는비판한 유·연총회의 잘연도전정은 실현되지않았다 만일 일변이라든사일이 이조항에 적합하는기간으로 인정할수없나한다면 말리코가

「가능한 첫거회」라고 세로히체화한 조항은 얼마나하 기환으로 이해하여야할것인가? 외국영토에서 떠나가할원칙은다 그것은 자기의 항구적 군사전략기지로 만들려고 시도하는것들에게는 군대철거를위한「가급적 첫거회」는 대단히 장구한

시일 필요하여도 돌아올수없을것이다 남조선미국점령군에게는 따로 이와같은 조항이 필요한것이다
미국정부는 二개의 유회를 놓고있다 유·연특별위원회에서 그는 점령강자들이

조선으로부터 군대「가급적 첫거회」에 철거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안을 제기한 뒤 남조선에서는 조선영토내에서 미국점령군대는 그진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마로이칼은 적으로써 미국은 남조선을 예속시키며 그것은 미국식민지로 전락시키려는것을 자기의 남조선허수아비들과 체결하였다는것을 말리코는 지적하였다 점령군대철거를 감시하도록하기위하여 조선위원회는 최정할것을 제의하면서 미국

은 「임시유·연조선위원회」의 원조로서 남조선에있어서의 자기의 반조적책과 반민주주의적책에 대해하였던것과 똑같이 그위원회의 원조로서 남조선점령계속을 유해하려고 기대하고있다고 말리코는 지적하였다

이것은 말리코가 투구하고있는 「공산주의적괴뢰」에대한 전설의 재번제목적인것이다
미국이 다른국가들의 인민들을 통치하려는 시도는수단은 어떠하다 미국의 원

압하에 조직하고있는 허황 조선 인드네지아 기타나라에환한 유·연위원회는 원

조선에 억리를 가장한미국의목소리

위정권에 서정술한 정경의의정권대표의 역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말피르논 누구
라든지 제파제임장의 서있는사람은 그역설을보고 그역설이 조선의무소리가 아니라
미국의무소리라는것을 미해하지않을수없다고 말하였다

이비국무소리는 남조선에서의선거가 자유롭게 진행될것처럼 증명하려고 애썼
다. 조선의의정권대표는 그것을「증명」하기위하여 자기자신도 투표하였으며 또한
말피르논은 그것을 증명하였다 그것은 의심바없는것이다 마르 그자와같은 그런
자들이 남조선의군정의 치주들 이두고있는것이다 그는 증명하기를「조선사람들중에
는 다두나라보다 자기조국을 열사당하는 사람은 매우적다」고 하였다 이것도
의심할바가없다 조선인민들중에는 다른인민들과같이 변절자와 의국앞잡이들은 소
수인것이요 애국자들은 수백만인것이다 만일 그렇지않다면 정경의의정부는 조선
에서 비공정기주문을 승인하여달라는 요청을가지고 유·엔에 호소할필요가 없었
을것이니 만일만저 만일주주의정경에게전 남조선의의정부 유·엔의위신으로써
우에 주신은 위원단을 조직하여달라고 유·엔총회에 요청할필요가 없을것이다
그러나 정경의의정부의대표는 마르의 따위 종류의 요청을 가지고 유·엔정차
위원회에 호소 하고있는것이다 그는 자기의 인민들과 직면하여 대하기를 무
척부하한것이다 이소위 조선대표는 의국의총선과 국제위원단에 의거하지않고

조선에서 할수없다 왜그러나하면 그는조선사람이아니기때문이다 그는 김(경)가
자아니고「은」인것이다

말피르논 그의졸도들이 남조선의의정부를 조선의 민족적정부로 승인하는 것
의필요구를 들고나오는것을 지적하면서 말피르논 말하기를 말피르논의 요구는
너무나 지나친것이며 그는 정경의제도를 북조선지익에도 보급시키려고 갈망하고
있다고하였다 미국회수아비들의 이망상이 어느때든지 실현되지못할것은 의심할여
지도 없는것이다 북조선인민은 남조선인민들과함께 一九四八년八月에 자기의민주
주의적 인민정부를 선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설하였으며 또 어느때
든지 미국강자와 그의 앞잡이들의 노예로는 되지않을것이다

미국대표의 역설에대한 몇마디말

유·엔 임시위원단이 남조선미군정에게 제공한 선거권고안을 절제 인용한 상국
대표의 대담하고 말피르논 중국대표가 이권고안에서 어떤것이 철회되지않았다는
것을 묵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관한 자료는 제공할수없다는 구실로 조선인민영자들의
선거권을 막을때대한 권고안은 철회하지않았다 그러나 원인은 여기에 있는것

특히

국립사무총장

트루그메, 티, 귀하

사무총장 귀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인명화

는 영장을 가져는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포세제 국련총회 금차회
의에서의 조선문제토의회 참가할 기회를확약하도록 루차 귀하에게 요청하였습니
다 그것은 조선문제개토의회의에서는 국련총회는 반드시 조선인민의 진정한대표
의 의견을듣고 또 반드시 우리인민의이익과 지양에 적합한 결정을 채택해야만
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인정하였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정치위원회는 우리정부의 정당한 요구와 조선인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무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포세제 총회회의에서의 조선
문제토의회 참가시키지않자투 결정하였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정치위원회의 이같은 전경에대하여 단호하게 함

의하는바입니다

조선정부는 이결정에 항의하면서 이결정은 조선인민의 결정할대로의 참가없이
총회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하여는 몇개구구의 무면제기독라고 인정하는바입니다

조선정부는 다음과같이 설명하는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총회회의가
조선정부대포세제의 참가없이 조선문제에 관한결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조선정부의

절대조선인민은 이러한결정을 승인하지않을것이며 조선으로부대의 모든 의구군
의 특지결거불위하여 조국의통일과 통일적 조선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 위하여
무정을 재확인합니다

귀하에게 송설으로 정의를 포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장 박 현 영

一九四八年十二月十日

평양시

(一九四八年十二月十一日 민주조선)

진을 행용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군정주에게 발호한 것이 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하였다

또한 남조선에 발리크는 「유·에임시조선위원회」의 설립에 남조선에서 실시된 선거의 미비점 비민주주의적 성격을 폭로하는 많은 실책과 또한 미군정국의 남조선에 화합한 경찰 해로제도를 등박하는 사실을 인용하였다 발리크는 「유·에임시조선위원회」이 제출한 보고를 승인 하며 또한 경찰의 과잉부른 합병적 정무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제안에 조선내포단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발리크는 「유·에임시조선위원회」의 사실이 조선인민의 이익에 해치된 목적을 가졌으며 반민주주의적이고 또한 유·에임시정부를 견제하였기 때문에 조선은 동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결의초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그는 다시 미국대통령의 의입문에 정치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또한 미정당군용 남조선에 계속주둔시키도록으로 전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대통령이 전위원회의에서 조선으로부터의 미군군대를 「가급적속한 지일내로」 철퇴시키도록 제안하여 승인된 무의미하고도 해해한 규정은 조선으로부터 추방군을 「가용한것기회에」 철퇴하자는 더욱무의미하고 더욱 막연한 문구물가진 새결의초안으로 바꾸어지고있는 것이라고 발리크는 말하였다 또한 발리크는 새결의 초안가운

포함된 구명은 조선으로부터의 조선내의 철거가 이미 시작되어 음년十二월말에는 완료하게 되어있는 만큼 조선에 한하여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평토에서 떠나기 싫어하고 필수있는대로 오래동안 그렇고 지내려하고 거도 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와같은 규정이 어떻게 무기한하게 차기군대를 추방시키지 못할 구명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내포단은 그의 결론에서 정치위원회가 남조선의 주민들에게 해치는 것을 조선인민의 대표들을 이문제의 토론에 참가시키지 않음으로써 변화시킬 것을 권유하며 정치위원회의 총회의 주의문 환기시켰다 또한 체코슬로바키아 및 유고슬라비아의 예를 들면서 정치위원회의 제출한 결의초안은 다만 조선인민의 현실한 이익을 위하여 유·에임시의 위상에 또한개의 타격을 가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다음 동문제는 조선내의 부흥이었다 그리하여 예기되었던 바와같이 미국대통령의 지지에 의하여 기안된 동결의초안과 「조선위원회」 조주 중국 할바들 불만저인 두 비틀림 및 헛된 야망으로 보아 「조선위원회」이라는 카나다내포단이 제출한 수정안은 다수결의로써 채택되었다

조선이 끝났다는 유·에임시의 초안도 또한 조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의장에 따르면 조선내포단은 이문제의 의논을 끝났다고 선언하였고 자결었다 조선내포단은

회의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시키는데 대하여 강령의 합의하였다. 스탈린도 또한 이
 위선조서는 스탈린의 초안은 이미 제출되어 그것에 부속되었다는 사실을 참가자들은
 동시에 회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자기대표단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말하였다. 스탈
 린의 초안은 결의에 수반한 결의안의 어느 항목에도 발부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결코 채택된 결의 초안은 보류될 수 없는 것이다.
 스탈린 대표단은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스탈린 대표단이 제출한 결의 초안을
 결의에 부차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의 설명이 끝난 다음 스탈린 결의 초안은
 결의에 부차게 되어 스탈린 전민 주주의 국가들의 대표단은 이에 찬성 투표하였다. 그
 러나 미·영·다수파는 미국 대표단의 요구하는 대로 찬성 투표하지 않기로 하고
 미동에 대한 연약으로써 미국의 위선과 상투를 이용케 하는 의도를 다지하면 투표하면
 안대 투표하였다.

(一九四八年十二月十五日 민주조선)

조선문제에 관한 말리크의 연설

一九四八年十二月十二일 국민총회에 의

1. 미국은 조선의 독립적 진을 방해하고 있다

조선문제는 전후평화조정문제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말리크는 그의 연
 설의 서두에서 말하였다. 一九四五年十二月의 모스크바 3국의 상회의에서 주선을
 통일민주독립국가로 재건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정부의 조직을 철저히 하여 조선으로
 하여야 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제 조건을 창출할 데에 찬하여 협정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스탈린 정부측에서는 모스크바 협정에 의하여 소련과 미국에 부과된 의무에 적응
 하여 조선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이 협정을 실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국이 조선민주주의적 정당 및 사
 회단체와 협의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희망과 기대에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다. 왜그러나 하면 조선정권의 운명을 결정하리 할 때에는 반드시 조선인
 민 자신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미공동위원회 미국 대표들은 이 위원회가 사실에 착수한 첫날부터 부
 권 의무를 위반하는 길에 드려섰던 것이다. 즉 그들은 만민주주의적 정당들과 협의
 할 것을 고집하였으며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통합하고 있는 남조선의 만민주주의적
 정당 및 사회단체를 협의에 참가시키려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며 반대하였던 것이다.

미국 정부는 一九四五年十二月에 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할

정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한 그들의 실질적 목적과 정책을 음미하는 것은 최종안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쓰미공동위원회의 사실적 배경에 이따금씩 나타났던 것이다. 미군정청과 미군사령부는 남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조하는 방향을 취하지 않고 일본군주주의자들과 협력한 부일협력자들과 극우반동분자들을 지지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이러한 미군대토들은 자기의 부당한 의무를 만족하지 위반하였던 것이다.

미국정부는 모스크바협정을 실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쓰미공동위원회 자체를 인정시키지 않고 과한 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실한 소명정부는 자기의 태도를 통하여 선제안을 위하여 협의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의 요점은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에 이르면 조선인민이 자기의 국가사업에 주권과 기판의 선지를 조적하며 조선의 민중적인 주의를 정부를 수립하며 자기의 고유의 무력을 확립하며 또 외국에 어떠한 압력과 찬성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모든 내적 정치적 및 경제적 국가생활을 조직하는 것들을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이 재료들은 조바트제의는 조선인민의 근본적 요구와 미의에 합치되는 것이며 또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일반적 원의에도 일치되는 것이다.

조선으로부터의 외국군대의 철거에 관한 소매트정부의 제의는 조선인민의 가장 광범한 충성들에게 일렬한 반응을 받았다.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 그리고 모든 우익계단과 사회단체도 또한 동의하였다. 이는 소매트제의의 근본적으로 찬동하면서 맞이하였다. 조선으로부터의 외국군대철거를 반대한 것은 다만 야망은 온 조선인민의 적들뿐이었다. 그들에게 동대고 남조선의 군정을 활동하고 있다. 조선으로부터의 외국군대철거를 미국은 철정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기군대에 의한 남조선정부를 될수 있는대로 잘기간 연장하려 하며 남조선민주사령부가 의거하고 있는 반인민적 반동모방들의 지위를 강화하려 하며 또 자기주구들이 배포기관과 정부에 선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위「선지」를 남조선에서 행하려 하는 것이 명백하여졌다. 선지에 관한 이 화장은 종류의 계획의 본질은 조선인민의 자유의사로 시를 허용하지 않으며 반민주주의적 본질을 모호하다. 정권을 장악하려는 것이 명백하여졌다.

반역자들에게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조선인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하고 미국은 국권의 위신을 과용하여 남조선에서의 자기의 정책을 음해하려고 하였다. 소위「다수」의 지지자들이 그들은 남조선정부를 세이 자국민총회의 의사를 일정에 포함시키고 소위「인사국립조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때 성공하였다. 어의했

한조직은 비법적이며 조선인민의 민족자결원수에 호응하는 것이다
 이 위원단의 사업은 미군정의 그들의 감독하에 있는 경찰기관을 통하여 실현한 남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 무행 태로의 광명수에서 진행되었다 위원단의 참가하에 조선
 인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남조선에서 만민투수의 위조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조선
 인민들이 응오하는 무일협력자유 미국앞제비인 남조선반도도 당물로서 구성된 의
 회정부가 수립되었다

남부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미군정이 실시하는 남조선헌법제정을 환영
 하여나섰던 것이다 일관한 이상의 명원을 가지고 있는 오십육개의 우익 중견은 친
 회의의 제정당사회단체는 전조선회의를 조직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남조선헌법제
 정을 추진토할 것과 임시국회의 즉시결정요구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미군정과 소위 「임시국회조직위원회」은 이조선인민의 소리를 무시하였다 불만
 시 상하를 뒤흔들고 오로지 구성된 친미적구름과가 치도하고있는 「국회조직위원회」은 미
 군정의 비법적으로 전횡하였다 이 위원단은 미군인민의 불공평한 탄압을 유해
 하는 행동으로 되었다

二. 미국은 남조선에 의회정부를 창조하였다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잔압하며 철저한 권력집행에 전장전투하는 조선에서 진행될
 주주의 위위조선거의 철폐로 남조선에 의회정부가 수립되었으니 그것은 다만 일제
 의 비수반동정당인 「한국민주당」과 리승만도당의 내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는 정치위원회에서 설립하였기 때문에 또 반대당이 상제하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 一九四八년 五月十日 「선거」가 정찰의 압박과 탄압의 조건하에서 진행되어 선거
 인원이 자유로히 의사표시할수 있는 가능성을 수지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사실
 과 부진들을 의회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는 말하였다 정치위원회에서 또 반대포단화
 가라한 이회국가대표단들이 이 「선거」는 강제적이야 위조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그 증거는 아무도 논박할수 없다

「국회」도단은 「임시국회조직위원회」이 이 선거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원단의 이인정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정치위원회의서
 이회대표단이 제기하였지만 아직 아무 대답도 없다

바로 그 위원단의 위조들중에는 남조선의 선거가 때로 조작하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의 주장은 수다할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리키는 지적하였다 이 사실들이 너무
 나 현실하기때문에 위원단의 사실들을 특히 불완전하고 모호·부추르는 미군정당

국에게 이 자결권을 의탁해 할까 자살도 후회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려고 검토하던
중이었다면 것이다

「일시국면조선위원단」의 자포를 조사해본 결과 이 위원단은 기본적으로 활동
하지 않고 순전히 미국의 타락에만 할말까 활동하였다는 것을 쓰면 대단은 국민
다 이 위원단이 작성한 자포에 근거하여 어떤 관찰자든지 남조선에는 전거를 위한
유료는 분위기는 전례없이 되어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국면위원단은 남조선에서의 전거정부를 결성하며 감시할 수가 전례없었다는 점을
말리크는 별가하였다 이 위원단의 보고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위원단은 전거를 감시
하기 위하여 다만 구개만을 조직하였는바 그 인원의 중요부분은 미군정직원을 중
시 몰아 놓은 것이다 위원단 자살의 자포에 의한다면 이 반들은 설거구의 2% 이상은
방문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소위 서울정부는 남조선 주민의 실제인대로 보고 설거할 수 없다고 말리크는 말하였다
미국당국이 조선인민의 의사와 민족적 리익에 반하여 수립한 이 정부는 미국 주권에
의지하여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로 전환하려는 의도정신을 표시할 따름이다

말리크는 강조하기를 미군정당국의 태도라도 피의정권의 수반 이승만도 조선의 남
부를 미국 식민지로 전환하려는 자기의 뜻을 일지기 감추지 않았다 一九四八년十

월二十五일 조선출판물의 보도에 의한다면 이승만은 동경으로부터 도라와서 생명
까지를 내아대는 남조선의 정권을 쥔 리르르니아주와 똑같이 보도할 것을 약속하였
다고 하였다 一九四八년二月五日「일시국면조선위원단」의 회의식장에서 이 위원단의
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우리들은 우리 위원단에게 말하기를 남조선에 단독정
부가 수립된다면 어떻게든 역시 미군의 상정적 그르바의 자일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나는 내가 그랬던 개인적 대화를 인용할 수 있다 그때 남조선의 미국
고문대표에게 이에 관하여 회상시켰던 것이다 이 미국대표는 대답하기를「미국의 총장
이나 또는 국면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소위 민족정부의 지위는 어떤 것일 것이
가? 본질에 있어서 이것은 조선인이 그같이 싫어하는 말을 쓴다면 미국이나 또는
국면의 후진 명도와 같은 것일 것이다 또한 단 한 가지 정부가 외국군대의 지원을 받지 못
한다면 이 정부는 오래동안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리크는 더 나아가서
지적하기를 국부정의 대한 기관인 위정론에 있는「조선문제 연구소」는 서울정권을
활동제제노라고 그 특징을 말하였다 미국정당국의 정책의 산물인 이 민간인정권
은 조선인민의 민족적 리익에 반하여 국부의 분리를 고집하며 남조선은 미국 자본
의 제정도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부정적인 것은 임시위원단의 차포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미군정이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적 경제설치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정치의 근본이 자-로에게서 실현된
 인민주주의정치를 실현하였기다 경제적으로도 발전시킨 자-로의 인민주주의정치는「인
 민주주의위원회」의 공로하에 남조선에서 발족되었음과 또 자-로가 민주주의위원
 국위원장이 자-로의 인민주주의를 승인한것같이 국권이 남조선「정치」를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또한 「인사위원회조사위원회」의 보고를 확인하고하며 위의사실 경위를 알
 적으로 선거된 해포정부로서 승인하는 제의에 동의할수없다

「인사위원회조사위원회」이 남조선의 선거의 결과가 마침내 국민의 자유와 사
 인권이 인정하는데관한말미는 그와같은 결과는 실재하는 완전한 모순된
 다는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위원단자체의 차이에있으며 선거시에 남조선에있
 던전대미군의 해포와 경제의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인 놀라운 사실들을 인용하
 였다 그런데 어떤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정당당은 물론한편의게도 위원단에게 다
 음의말이 통지하였다 즉 다만공적차이에만있었던 남조선에서는 선거실시준비기에
 있어서 사자가四一六명 부상자가七五八명이었다 또남조선정부부장조명우의 공적차
 로에의하면 七일사부히 十일까지 三일간에정치적감상의결과 의견차가五四二回
 명이었다

이런데바로 이「인사위원회조사위원회」의자료에 의한남조선의「자유」는 어떠한것
 인가 잠시반중 어떤반은 그보고에서 다음과같이말하였다「조선경찰의 최고분관
 권소대위는 검거사건을 직접조사하였는데 그것은 一九四八년三月에 이터난것이
 고백에 피검자들은 경찰취조대에 그들에게가한 구타의 결과로 경찰지사에서 사
 당하였다 심문할때에 무히 다음과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피검문자들의 자
 세다리를 붓트며대고 발바닥을때린다 무의자세에 매달이놓고 신체물때린다 다된
 물 부로대달이놓는다 다량의물을 강제로먹인다 번스는 이고문은 일본경찰제도에
 서 상용받은것이므로 생각하고있다 번스대위는 첨가하여말하기를 고문은 통째로
 경찰이 남에하되 또그는 고문받고있는 경찰피검자를 무적한것이 한두번이아니라
 고하였다」

민주당은 오직 이와같은 질서가 그들에게는 전리하며 정상적인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고 말리크는 지적하였다 그런데 미군사령관하자는 위원단에게 다음
 과같이 언급하였다「물론 경찰이 주민을구타하는 차원이 빈번하다 경찰은 수천
 년상 그렇게행동하였으니 앞으로 수세대를 그렇게행동할것이다」「인사위원회조사
 위원단」에게 보도된 사실들은 이러한것이다 그러나 이위원회는 이들과 무정하
 지않았을뿐만아니라 또의적 미군정당국과 남조선의 그들의 두구들의 의의같은

이다. 본절에 있어서는 조항은 철회할 일정한 기한도 정하지 않고 조선명토에 의무를
 대가앞으로 더 주둔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국제원칙에 모순되는 것이다
 말리크는 미국대표단은 「중의유회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총회에서는 그
 들은 점령군이 「가능한 한 빨리」 조선으로부터 철퇴하여야 한다는 제의를 지지하였다
 그리면서 미군정은 남조선의 한편의 지구를 미군용으로 확산하며 무기한으로 의
 지구에 있어서의 특권과 특권을 미군당국에게 하여하는 노예적철점을 남조선의
 정권에 강요하였다

이 노예적조약을 반대하여 많은 남조선의 퇴국회의원까지 항거하였다. 미정령군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은 매일 천만명이 필요하다. 미정령군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장소와 창고의 대가를 조선인민은 자기의 부담으로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조선의 전일본재산은 철점의 하와 실제로 미국당국의 수중에 넘어갔다
 다. 남조선정권의 피의대통령 이승만은 남조선국회에서 삼기노예철점을 승인할것을
 요구하면서 엄명하기를 미국대표단이 와리국원총회에서 남조선정권을 지지한데
 대한보상으로서 이러한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위하여 이승만과 그의 도당
 뿐 아니라 조선훈민들의 리의를 배반하려하는 것이다.
 미국대표는 정치위원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군정이 남조선에서 일방적으로 행하

모-든 것에 대하여 국원총회가 「법적이라는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불법에 대하여 법적이라는 도장을 찍을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미국대표단은 이와같은 길로 총회를 끌어가고 있다

말리크는 계속하여 엄명하기를 이와같은 파벌적결과를 초래한 「임시국원조선위
 원단」의 사절을 계속할 심 「조선위원회」을 조직하는 것은 용인할수 없으며 국원의
 원추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쓰면대표단은 생각한다고 하였다

조선총독립국가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의국군대를 조선명토로부터 철거하고
 「임시국원조선위원회」을 해산하고 조선인민에게 자기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데 있다고 쓰면대표단은 확신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결론에서 말리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를 조선문제 논의에 참가시키지 않
 으므로서 정치위원회가 범한 놀라운 불공정성에 총회원들의 주의가 이끌었다
 의정위원들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정치위원회는 「미국의소리」 서술기외정권의 대표의
 말을 듣고는 깊은 절망하였다

영미불평화 특히 미국대표단은 조선인민의 진정한 대표의 말을 듣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은 이대표가 미군정 어쩔게 남조선의 경찰국가로 전환시켰는가 하는
 것을 국제적인 단을 통하여 말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공보는 미국대표단과 영미불평

正 誤 表		正 誤 表	
頁	行	誤	正
一	一	목차	목차
一	二	과할수	과견할수
九	四	회선	회전
九	十一	회에람	회람에
十	三	유자권	유림자
十八	九	결의하엿다니하고	결의하엿다고
二六	九	민국장관	민국장관
二七	八	정치위원회	정치위원회
二七	二	인민공화정부	인민공화국정부
二四	一	백로짜야	백로짜야
三八	一	신민치적	신민치적
四二	三	남북제정당	남북제정당
四六	一	철학	철설
四七	五	철장	철장
七四	二	약기	약기
七五	三	조전으로부터	조전으로부터
七五	一	조항을	조항을
七五	五	이와같이	이와같은
七七	五	사실은	사실은
七七	五	미군정	미군정이
七七	四	과벌적	과벌적
七八	五	복합	복합

이로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들을 참가시키지않을 결정을 채택케한 것이다. 그것은 조선경제의 전상을 말할가능성을 그들에게 주지않기위한것이다. 그러나 결리는 채택여론의지지를받았으며 정의는 승리할것이다. 이것은 의심이 지가없다. 조선인민과 또이델나와의 인민도 어느것이 전라이고 정의이며 어느것이 위위 전형 복합인가를 잘알고있다.

(一九四八年十二月十六일부 뿌라부다지에서 번역)

一九四九年四月十五日
一九四九年四月二十日

印刷
發行

著者

國際問題研究會

發行所

國際問題研究會

印刷所

平壤特別市蓮花里十三番地

民主朝鮮社出版印刷所

電話四七一八番

【定價拾五圓】

1-9707

10,000部

第三次國研會社明洋同復



SHIPPING ADVICE #	<u>2005</u>
BOX #	<u>2</u>
ITEM #	<u>99</u>

AS
 Batch No. _____
 Item No. 132

究